



■ 전화 | 5526-2404 | 5526-5464 ■ CEL | 04455-3563-2158 ■ E-mail : sol6070@gmail.com
■ 은행계좌 ■ Santander | 65-50535887-2 ■ CLAVE | 014180655053588720 ■ HANIN DIARIO SA DE CV

한인매일 연속 보도

찌라시의 진수 엘코레아노

파렴치의 진수 이임걸 영사 탄원서

4화 그러나 찌라시는 침몰한다. (1)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때를 자청한다."

바로 잠언 14장에 나오는 금과옥조 같은 구절이다.

그리고 시편 1장에 보면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문구도 있다.

엘코레아노 발행인은 수시로 이 성서 구절을 되새기며 영육 간의 양식으로 삼기를 기원한다.

모름지기 종교인은 무엇보다 지혜를 갈구하며 겨 나부랭이와 같이 가볍게 휘날리지도 않아야 한다.

세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이 같은 삶의 자세가 엘코 발행인에게 충만했으면 한다.

안타까우나 12월 20일자 찌라시를 보면 엘코레아노 발행인의 박쥐와 같은 습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간 엘코는 피해자 측을 끊임없이 매도하면서 사건을 조작한 멕시코 검찰을 비호하고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 책임자인 공관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12월 20일자 엘코에는 공관에 대한 묵직한 문제 제기과 함께 멕시코 검찰의 범법적 내용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이의 직접적 동기는 역시 외교부를 비롯 멕시코 공관에 심각한 부담이 된 12월 12일자 찌라시 기사 때문이다.

이제 모든 상황이 봉합 수순이며 공관장도 나름 자국민 양모씨의 구명에 힘쓰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발한 찌라시의 준동은 공관의 노력을 망칠 가능성이 있기에 공관장은 엘코레아노 발행인의 경거망동을 제대로 질책한 사실이 있다.

결국 공관과 등지게 된 엘코는 그간 전혀 함구하며 터부시 했던 공관의 케케묵은 문제를 들추어 내고 멕시코 검찰도 성토했으며 본지의 예견대로 다시 교민 사회에 발붙을 수순을 밟고 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여도 사실 보도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엘코의 12월 20일 자 기사는 횡설수설 찌라시의 진수를 보여 주며 여전히 허위 내용을 쏟아 놓고 있다.

엘코레아노의 거짓과 오류 중 심각한 부분만 아래와 같이 바로 잡고자 한다.

"교민들은 사건 초반 업주가 제대로 정면 대응했다라면 W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엘코레아노)

교민들을 팔지 말자. 이는 엘코 발행인 혼자만의 미련한 발상이다. 업주가 정면 대응했다라면 멕시코 검찰은 "인신매매에 시달리는 한국 여성 구출"이라는 타이틀 대신 "한국인 마피아 인신매매 단 일체 검거"라고 확대 발표했을 것이다. 물론 업주는 당연히 두목으로 조작 구속했을 것이다.

"양00 씨의 수감이 피해자로 지목된 종업원 여성 5인의 서명으로 파생된 일이며 그 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관 영사의 '중용'이 있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만일 이 부분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엘코레아노)

사건의 실체도 모르는 저능한 이야기다. 공관 영사의 "중용"은 사실이었으며 이는 영사가 저지른 여러 직무유기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사람들이 격분한 이유는 먼저 멕시코 검찰이 "한인 여성 인신매매"라는 유령 범죄를 만들어 무고한 자국민에게 인신매매 주범이라는 허황된 혐의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한 분노의 요인은 바로 "인권침해 확인 여부와 이의 제기" 및 "조사와 수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는 영사 조력의 가장 기본을 이임걸 경찰 영사가 전혀 시도하지 않은데 있다. 바로 경찰 영사의 이 치명적 직무유기가 자국민의 억울한 옥살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임걸 경찰 영사도 지난 10월 초 멕시코 공관 국감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사실 관계도 전혀 모르고 기사를 쓰니 엘코레아노가 찌라시로 회자되는 것이다.

한인매일 영사 거액 편취 확인

질 수 있겠는가? (엘코레아노)

자신이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알리면서 까지 이 영사의 면전에 오물을 끼얹는 (엘코레아노)

뇌물은 그 당시 유일하게 검찰청 안에 있던 이임걸 경찰 영사와 그의 측근이 멕시코 검찰과 네고 했다고 해서 줬던 것이다. 외부에 있던 피해자 측이 먼저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상식적으로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거액을 건네는데 경찰 영사를 믿고 준 것이지 영사의 측근인 나이 어린 교민의 어디를 보고 주었겠는가? 이미 밝혀진 사실을 재차 호도하며 이임걸 경찰 영사에게 오물은 정작 엘코가 끼얹고 있다. 경찰 영사가 편취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피해자 측에 되돌려 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여전히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치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또 다른 양분, 서로 다른 탄원서를 쓰고 있는 교민사회 (엘코레아노)

한편의 우스운 코미디다. 경찰 영사를 위한 찌라시 탄원서를 쓴 자들은 엘코 발행인과 경찰 영사의 측근 몇몇을 비롯 사건의 실체도 모르는 선교교회 목사 뿐이다. 그럼에도 마치 교민 사회가 양분된 듯 헛소리를

멕시코시티 기상 정보

오늘	최고 : 22	
내일	최저 : 9	
오늘	최고 : 22	
내일	최저 : 8	

환율안내

오늘 오전 10시 기준

멕시코 페소 (Banamex)
Compra 20.00 Venta 20.75
원화 (외환은행)
사실때 1216 / 파실때 1174

긴급 전화

앰블런스 065
경찰서 066
소방서 068
전화번호 안내 040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안내

차량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5번 / 6번	1월-2월, 7월-8월
7번 / 8번	2월-3월, 8월-9월
3번 / 4번	3월-4월, 9월-10월
1번 / 2번	4월-5월, 10월-11월
9번 / 0번	5월-6월, 11월-12월